

사 랑 의 목 장

WEEKLY LOVE COLUMN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삼시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지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자, 나그네는 외투를 더 꼭 여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햇살을
비추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따뜻한 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은 종종 바람처럼 강한 자를 높입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더 큰 목소리,
더 많은 힘, 더 빠른 사람만이 살아남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훈련된 힘, 길들여진
능력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져야 온유해지고
명마가 되듯,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질
때 비로소 온유함을 배우고 쓰임을 받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먼저 양보합니다. 양보는 결코
손해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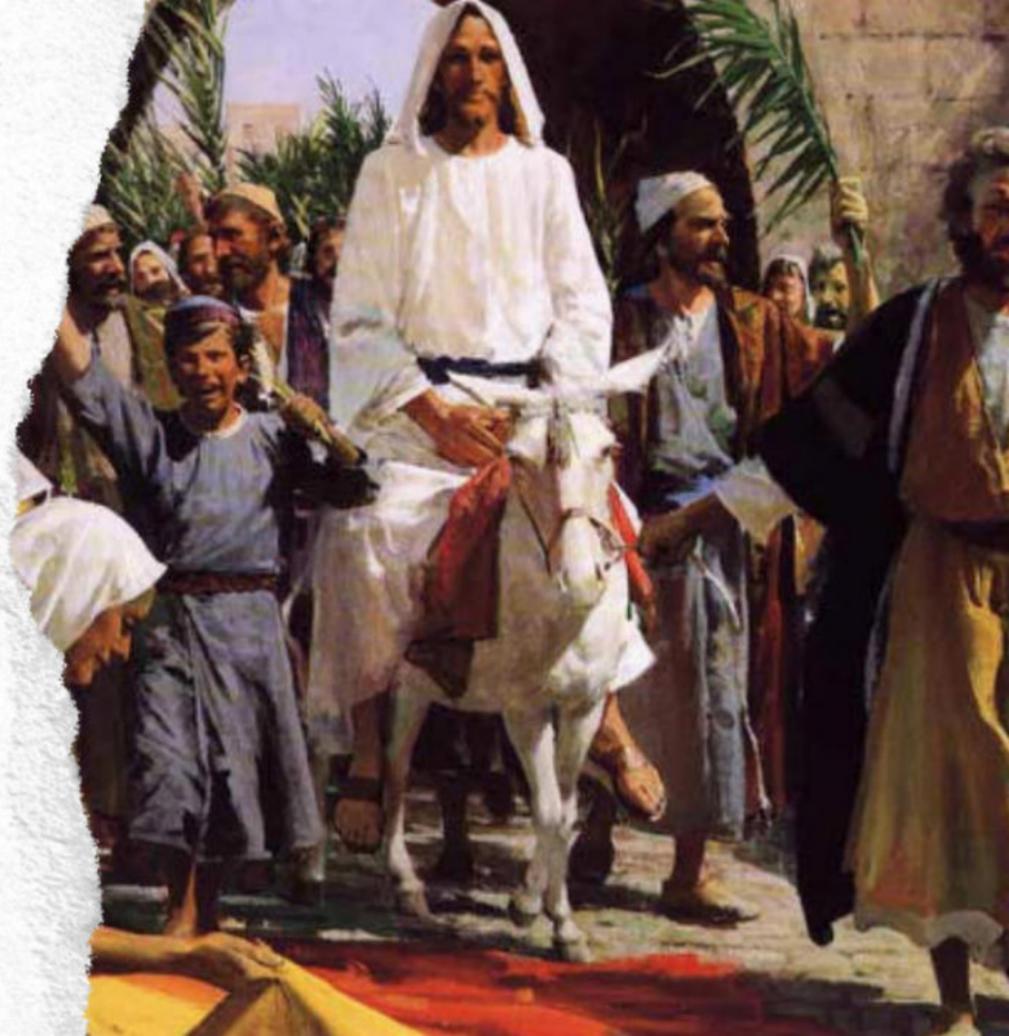
또한 온유는 참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TOLERANCE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누나 미리암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며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힘의 상징인 말 대신에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을 당하셔도 목으로 감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그 온유함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바람이 너무 거세게 느껴지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세요. 욕심을

부리기보다 양보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세요.

강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세요.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단지 '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땀에서 하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연습합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의 말은 따뜻하며, 그의
마음은 쉬이 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삽시다. 온유한 마음은 결국
복 있는 삶을 만듭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라나길 바랍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